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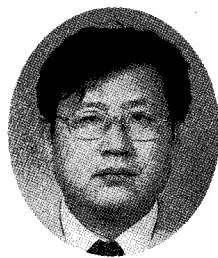
세계가 밀려온다(Ⅱ)

WTO 협상 중단 의미와 향후 전망

시장개방 요구 등 전반적으로 국내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 위해 협상력 집중 해야

뉴라운드 협상이 중단되었다.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 각료 회의는 협상 결과를 담은 각료 선언문을 채택하지도 못하고 협상 중단(suspension)을 선언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NGO)들은 협상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기의 의미



김용복
연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를 가지는 중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창출하여 21세기 세계 교역 질서를 새로이 형성하려는

움직임은 각국간의 상호 교류의 확대라는 세계화의 큰 물결 속에서 강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뉴라운드 협상은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규범의 창출을 위한 뉴라운드 협상은 시간의 문제이지 '없었던 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 중단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진 만큼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millennium

각국 '참여한 이해 대립' 협상실패 초래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의제 선정, 협상 방식 및 그 결과의 채택 방식, 협상 기간 등이 쟁점이 되었다. 포괄적 범위의 협상, 협상 결과의 일괄 타결(single undertaking), 3년의 협상 기간 등에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의제 선정에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농산물, 서비스 등 WTO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기설정의제(BIA: Built-In-Agenda) 이외에 공산품 관세 인하,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되었을 뿐이다. 노동, 환경, 경쟁정책, 투자 등 신의제(new issues) 분야와 반덤핑 협정 개정, 정부 조달의 투명성 분야 등에서는 의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협상은 농산물의 수출 보조금 문제, 노동의 무역예외의 연계, 반덤핑 협정의 개정 등이 걸림돌이 되어 결렬되었던 것이다.

협상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각국간의 참여한 이해 대립이었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의제를 짧은 협상 기간에 충분히 다루기가 힘들었던 것이 협상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각국의 협상 자세였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대립,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정하려는 선진국과 이를 반대하는 개발도상국의 대립, 농산물의 개방 확대를 둘러싼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축소도 협상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이전 GATT 체제에서 보여 주던 협상의 주도권도, 상대 국가에 대한 강제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세계 경제가 점차 다극 체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EU, 일본,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특

정 국가의 일방적 우위가 축소될 때 이해 대립을 조정하기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덤핑 협정의 개정, 농산물의 비교역적 관심 사항 등이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반영된 것도 EU의 협력, 농산물 수입국의 공조 체제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다.

이번 협상 실패는 향후 세계 경제 및 뉴라운드 협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세계 경제에서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WTO의 기능이 당분간 약화될 것이며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보호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간 경제 공동체 등 지역주의가 심화될 것이며, 미국 등 선진국은 다자간 협상보다는 쌍무 협상을 통해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증가하고 있는 반덤핑 제소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가 밀려온다(Ⅱ)

이익 줄고 피해 늘어 날 가능성 커

향후 뉴라운드 협상 전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뉴라운드 협상의 재개는 물론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들 분야는 WTO 협정의 기설정 의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의 협상 방향은 이번 협상에서 진전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을 예를 들면 관세 인하 및 국내 보조금 감축의 점진적 감축이 다루어질 것이며, 비교역적 관심 사항(NTC: Non-Trade Concern)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설정 의제에 추가해 어느 정도의 의제가 채택되느냐는 것이다.

이번 협상 과정을 볼 때 추가 의제의 범위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의제는 향후 이루어질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 구체적인 것은 2000년 새로운 일반이사회 의장이 임명(매년 2

월 경 선출)된 후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협상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광범위한 의제를 채택하기는 힘들 것이다. 기설정 의제 이외에 이번 협상에서 논의가 진전된 공산품 관세 인하와 무역 원활화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도가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신의제의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 환경 등은 개발도상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투자, 경쟁정책, 반덤핑협정 개정 등은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협상 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은 의제들을 동시에 다루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

신의제의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번 뉴라운드 협상은 국제 교역의 자유화 확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고, 국제규범 창출에 의한 21세기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창출이라는 의미는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의 중단은 한국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주의의 경향 강화는 대외 의존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에 대해 강도 높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슈퍼 301조를 활

향후 뉴라운드 협상 전망

구분	분야
의제 확정	농업, 서비스
의제 채택 가능성 높은 분야	공산품 관세 인하, 무역 원활화, 전자상거래
의제 채택 가능성 낮은 분야	투자, 경쟁정책, 환경, 노동, 반덤핑, 정부조달 등

millennium

용하여 통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WTO에서 슈퍼 301조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협상이 소폭의 의제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한국 경제에는 불리하다. 당초 뉴라운드 협상이 성공할 경우 한국 경제는 대체로 이익을 향유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농산물과 임·수산물 분야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이미 IMF 체제를 거치면서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법, 제도를 갖춘 관계로 신의제 채택에 대해 큰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산품의 경우는 전반적인 관세 인하와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의해 수출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 실패로 뉴라운드 협상이 소폭의 의제로 한정되어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되었고 반면 농산물 분야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여 피해는 줄어들 여지가 적게

된 것이다.

EU·日·中 등과 공조체제 공고히 해야

조건이 달라진 만큼 향후 뉴라운드 협상 대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선 의제 채택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먼저 협상이 시작될 기설정 의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서의 양보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은 농업 분야에서의 손실을 상회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되지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의제의 채택이 줄어들게 된 만큼 무엇보다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쌀시장 개방을 당초 UR 협상대로 2004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곡 수매와 같은 국내 보조금 지급의 감축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

며,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 사항이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상 외교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협상 과정에서 유지하여왔던 각국과의 외교 통상 협력 채널을 유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입장을 많은 분야에서 같이 해왔던 EU, 일본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WTO에 가입할 중국과도 반덤핑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호주의의 강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WTO를 활용하여 보호주의에 대해 견제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쌍무 협상 등 통상 압력이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통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 등 선진국과의 상호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국 체제의 강화에 걸맞는 시장 재편 및 통상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 **농약정보**